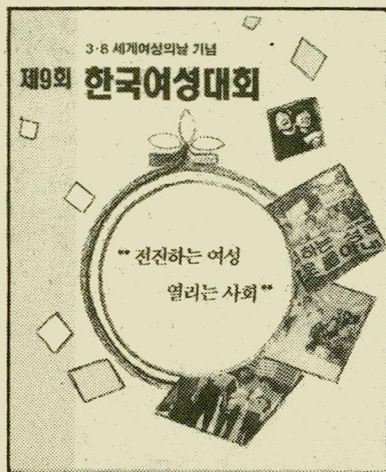




# 전진하는 여성, 열리는 사회

## 85돌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전국 곳곳 행사 다채

6~8일 노래극·가장행렬·성폭력 모의법정 등 준비

3월8일 '세계여성의 날' 기념 행사가 6~8일 서울 부산 인천 마산 광주 등 전국 각지에서 동시에 열린다.

올해로 85돌을 맞는 세계여성의 날 기념행사의 주제는 '전진하는 여성, 열리는 사회' '일터의 주인으로 우뚝 서는 여성노동자' 기념행사 기간에 전노협·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등 6개 단체가 공동 주최하는 '여성고용 촉진과 사회적 평등을 향한 전국여성노동자대회'(6일)와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주최하는 '제9회 한국여성대회'(8일)가 서울에서 대규모로 열리고, 한국여성대회에서는 '올해의 여성운동

상'(중소기업은행 노동조합 여성정책실) 시상식도 갖는다.

세계여성의 날은 1908년 3월8일 미국의 여성노동자들이 뉴욕의 텃거스광장에 모여 '정치적 평등권 쟁취'와 '노동조합 결성'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대대적 시위를 벌인 것을 기념해 제정된 날이다. 세계 각국의 여성노동자들은 이날을 '여성노동자 투쟁의 날'로 기념해오고 있고, 우리나라도 1920년대부터 3·8 여성대회 행사를 갖고 있다.

각 지역에서 열리는 세계여성의 날 기념행사는 다음과 같다.

△전국여성노동자대회=6일 오후 3시 서울 서강대 메리홀.

전노협,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등 공동주최. 여성 노동자 한마당, 연극 <일을 하고 싶어요>, 노래극 <버스 정류장 수만큼 타 아소를 지어주세요> 등.

△한국여성대회=8일 오후 2시 서울 명동 여자기독교청년회(YWCA) 강당. 한국여성단체연합 주최. 성폭력특별법 제정을 위한 모의법정, 여성정책 실현 촉구 가장행렬 등.

△인천 '93 여성한마당'=7일 오후 2시 부평1동 성당.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민중연합 여성위원회 주최. 여성노래 발표, 새 정부에 촉구하는 여성노동자의 요구 등.

△부산 제4회 여성한마당=7일 오후 2시 부산대 효원회관. 부산여성노동자회, 부산여성회 주최. 노래극 <안정된 일터, 살맛나는 세상>, 연극 <나부터 한마디> 공연 등.

△광주 3·8 여성대회=8일 오후 6시30분 광주 여자기독교청년회 대강당. 광주전남 여성문제특별위원회 주최. 기념식 및 문화행사.

△마산·창원 제5회 여성노동자 한마당=8일 오후 7시 마산 가톨릭회관. 경남여성회, 마산·창원 여성노동자회 주최. '고용불안 없는 세상에 살고 싶어요' 주제 문화행사.